



이윤희의 1920년대 흑우회 등의 항일독립운동 사건

【결정사안】

이윤희(李允熙)가 1922년 말과 1923년 초 대전 및 고향인 대덕군 기성면 가수원리를 중심으로 농민운동을 전개했으며, 1920년대 및 30년대 일본 도쿄와 오사가 지역을 중심으로 흑우회, 흑우연맹, 조선일반노동자조합, 조선자유노동자연맹 등 각 아나키즘 단체를 통해 항일 독립운동을 한 것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이윤희의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방화로 멸실되었고, 각 논문이나 자료에 등장하는 이윤희가 몇 년생인지 어디 출생인지 명확하지 않아, 각 자료에 등장하는 이윤희와 신청인의 부친 이윤희가 동일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신청인의 증언을 토대로 출신학교인 진잠소학교 졸업생 명부를 통해 1902년 4월 20일생이며 대덕군 기성면 가수원리 출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같이 활동한 이강하와 소학교 동기임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이윤희는 국내와 일본에서 같이 활동한 이강하와 소학교 동기인 점, 대전을 중심으로 고향인 가수원리에서 농민운동을 한 점, 그 외 활동시기, 활동지역 등 신청인의 주장과 자료의 내용들이 일치하고 있다. 또 아나키즘 연구자 김명섭 교수가 주장하듯 한자이름이 같고, 에스페란토를 구사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동일인물이라고 판단된다.

2. 이윤희의 활동을 국내와 일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는 1922년 말과 1923년 초에 걸쳐 대전 및 고향인 대덕군 기성면 가수원리를 중심으로 농민운동을 전개했으며, 일본에서의 활동은 1920년대 각 아나키즘 단체를 중심으로 한 것과 1930년대 아나키즘노동단체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920년대에는, 1921년 흑도회, 1923년 흑우회, 1928년 흑우연맹, 1928년 오사카에서 조선인 신진회, 흑색선인사와 같은 각 아나키즘 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흑우회 기관지인 『현사회』의 동인으로도 활동했다. 1930년대 들어서, 1932년 시바우라(芝浦)노동자자유연합을 조직하였고, 같은 해 전국노동조합자유연합회에서 서기로, 1933년 조선자유노동자조합 임시 총회에서 문화부 간부로 선출되었다. 또 『자유연합신문』제52호 (1930.10.10)와 『特高月報』

(1932.10), 『사회운동상황』4에 검거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1930년대에도 주도적으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고, 그에 관해서는 『근대일본사회운동사인물대사전』4권에 비교적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3. 일제강점기의 아나키즘 운동은 반일(反日)직접행동, 반 상애회(反相愛會, 친일단체)투쟁, 1920년 후반부터 두드러지는 노동운동, 1940년대 비밀결사에 이르기까지 항일운동의 일면을 꾸준히 보인다. 이윤희의 경우, 재일 한인 최초의 사상단체인 흑도회를 비롯 1933년 조선자유노동자조합이나 1934년 조선일반노동자조합에 이르기까지 그의 활동 자체가 아나키즘 운동 과정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그동안 자료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업적을 평가받지 못한 이윤희의 항일독립운동은 진실규명으로 판단된다.

【전 문】

【사 건】 가-2801 이윤희의 1920년대 흑우회 등을 통한 항일독립운동

【신청인】 이재면

【결정일】 2007. 5. 29.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이 유】

I. 사건 개요

신청인은 부친 이윤희가 일본에서 박열 등과 함께 흑우회를 조직하여 활동했고, 귀국 후에는 농민운동, 야학활동을 통해 항일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며, 이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청하였다.

II. 진실규명의 과제

1. 진실규명 대상자 이윤희와 각 자료에 나오는 이윤희와의 동일인물 여부
2. 이윤희의 활동 내용
3. 이윤희의 활동 의의



III. 진실규명의 목적과 근거

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진실규명의 범위 중 하나로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진실규명대상자 이윤희가 국내와 일본에서 흑우회 등을 통해 항일독립운동을 한 사실여부를 밝혀, 사실일 경우 기본법 제4장(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이 정한 바와 같이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사전조사 결과, 이윤희가 국내에서 농민운동 그리고 일본에서 1921년 흑도회, 1923년 흑우회, 1928년 흑우연맹, 그리고 1932년 전국노동조합자유연합회에서 서기로, 1933년에는 조선자유노동자조합 임시총회에서 문화부 간부로 선출되는 등 1920년대와 30년대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6년 9월 19일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다.

IV. 조사의 방법과 경과

본 사건의 조사는 선행연구검토 및 문헌자료 검색, 관련기관자료 검색, 전문가 자문, 그리고 신청인 진술조사를 병행하였다.¹⁾

1. 문헌자료조사

각 아나키즘 연구에 관한 논문, 단행본 등 자료 수집을 위해 문헌자료 및 선행연구 검토, 그리고 관련 자료가 소장된 기관에서 검색하였다.

국내의 경우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국가보훈처,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각 대학 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한 검색과 조사관의 방문조사를 병행하였다.

국외의 경우 일본의 아시아역사자료센터, 국회도서관, 국립공문서관 등의 자료를 검색·조사하였다. 문헌자료 조사와 관련하여 자세한 목록은 참고문헌으로 정리해 두었다.²⁾

2. 전문가 자문

아나키즘 연구자인 김명섭 강남대 교수³⁾, 일본의 연구자 카메다히로시(亀田博), 재일조선인운동사 연구자인 호리우치미노루(堀内稔) 등을 통해 아나키즘 운동에 관한 자문 및 자료

1) 사건조사일지.

2) 사건관련 참고문헌 목록.

3) 김명섭 교수 자문.(2006.8.30) 내용 요약.

의 협조를 얻었다. 그리고 아마다쇼지(山田昭次, 전 立敎大교수)를 통해 판결문 등 재판기록을 입수하는 방법⁴⁾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3. 신청인 면담조사

신청인 이재면과 수 차례의 전화통화 및 면담 조사를 통해, 부친 이윤희가 대덕군 진잠소 학교 졸업생이며, 일본에서 박열, 카네코후미코, 양일동⁵⁾ 등과 함께 활동한 것, 귀국 후 독립노동당(獨立勞農黨)으로 국회의원에 출마⁶⁾한 것, 공산당원에게 끌려가 대전 수복 시 총살당했다는 것 등에 대해 들었다.⁷⁾

V. 조사결과

1. 진실규명 대상자 이윤희와 각 자료에 나오는 이윤희와의 동일 인물 여부

이윤희의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방화로 멸실된 상태이고, 각 논문이나 자료에 등장하는 이윤희가 몇 년생인지 어디 출생인지 명확하지 않았으나⁸⁾, 신청인의 증언을 토대로 출신학교인 진잠소학교(현 진잠초등학교)에 보관하고 있는 졸업생명부⁹⁾를 확인한 결과, 출생은 1902년 4월 20일이며, 충남 대덕군 기성면 가수원리 출신이라는 것과 국내와 일본에서 같이 활동한 이강하(李康夏)¹⁰⁾가 소학교 동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4) 『特高月報』 등에 있는 검거기록을 바탕으로 도쿄지방검찰청에 이윤희 관련기록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기록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음. (2006.11.28)
- 5) 전북 옥구출신, 전 국회의원, 1930년 3월 오재덕과 북경으로 가 백정기 등과 교류하며 아나키즘에 공감하게 되었다. 1931년 일본으로 건너가 흑우연맹과 동흥노동동맹의 기관지 『흑색신문』의 편집위원으로 참여해 발간에 힘을 쏟았다. 1932년 9월 동흥노동동맹에 가입하여 1933~1935년에 대표의 한 사람으로 활약했다. 이때 조선자유노동조합의 오우영, 이윤희 등과 연계하여 반파소, 반제국, 반실업의 3反투쟁을 전개하였고, 상해(上海)의 남화한인청년연맹과도 연락관계를 맺었다. 1935년 3월 2일부로 『조선동흥노동뉴스』 제1호를 발간하였고, 이후 반일적 출판물을 발간하다가 출판물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명섭, 『재일조선인아나키스트들의 노동운동』, 2003, 196쪽)
- 6) 『조선일보』 1950.5.12.
- 7) 신청인 진술내용 요약.
- 8) 예를 들어, 생몰일을 1906~1951이라 한 것(『근대일본사회운동사인물대사전』 4권, 702~703쪽, 김명섭, 『1930년대 재일조선인아나키스트들의 활동과 이념』, 2003, 48쪽 등)이 있고, 출신고향 부분이 미기재되어 있는 것(김명섭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재일 한인아나키즘운동연구』, 2001, 87쪽 등)도 있다.
- 9) 진잠초등학교에 졸업생명부, 학적부 확인 및 요청(2006.8.30). 졸업생명부는 있으나 학적부는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고 함. 국가기록원에 공문 발송했으나 이윤희의 것은 없다는 회신을 받음(2006.9.12). 최종 확인을 위해 국가기록원에 남아있는 진잠소학교 학적부를 조회했으나, 현재 1911, 1920, 1921년 것만 남아있음(2007.4.5~6).
- 10) 이강하, 이윤희는 진잠소학교 3회 졸업생. 독일 전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한 운동에 같이 참여했고 박열, 이윤희 등과 흑로회, 흑우회를 설립한 멤버이다. 그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 『흑도』 창간호에 「우리들의 절규」를 비롯, 『현사회』 등에도 그의 글이 실려 있다. 이강하는 1990년 보훈처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다.



이윤희에 관한 것은 『근대일본사회운동사인물대사전』4권에 비교적 상세히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작가이자 아나키즘이론가이며 흑도회, 조선동흥노동동맹, 조선자유노동자조합에서 활동했고, 대전에서 농민운동, 그리고 1923년 2월 이강하 등과 최초의 아나키즘 단체 흑로회 결성, 그 후 30년경 오사카에서 『교회운동사』 『흑색선인사』를 창립, 32년 7월 시바우라 노동자자유연합 조직, 33년 3월에는 조선자유노동자조합 재건을 위한 임시대회 주창, 4월 전국자유연합 제3회 대회에서 서기로 선출, 34년 1월에는 조선일반노동자조합 설립, 해방 후 귀국하여 독립노동당지구당위원장으로 활동하지만 조선 전쟁 발발 후 공산군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와 같이 이윤희는 국내와 일본에서 같이 활동한 이강하와 소학교 동기인 점, 대전을 중심으로 고향인 가수원리에서 농민운동을 한 점, 그 외 활동시기, 활동지역 등 신청인의 주장과 자료의 내용들이 일치하고 있다. 또 아나키즘 연구자 김명섭 교수가 주장하듯 한자 이름이 같고, 에스페란토¹¹⁾를 구사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동일인물이라고 판단된다.

이로써 각 논문 및 저서에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미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2. 이윤희의 활동내용

이윤희의 활동을 국내와 일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내에서의 활동

국내에서는 이윤희가 1922년 말부터 1923년 초에 걸쳐 대전 및 고향인 가수원리를 중심으로 진잠소학교 동기인 이강하와 함께 농민운동을 했다.

1922년 12월 대전군 가수원리에서 임시 농부대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1923년 3월에 관련기사가 집중되어 있는데, 「대전군의 농부대회에서 이강하가 사회, 이윤희가 선언서를 낭독」¹²⁾, 「가수원 농부대회에서 이윤희, 이강하가 집행위원으로 당선」¹³⁾, 「리윤희(李允熙), 리강하(李康夏)군이 ‘디주황포의 리면을 해부하야 렬변을 토하야」¹⁴⁾, 「소작권이동방지

11) 1920년대 초기의 아나키즘적 경향과 관련하여 에스페란토의 학습과 보급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에스페란토와 아나키즘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청인은 에스페란토로 된 서적들이 다수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하며, 남아있는 일부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었다.

12) 『동아일보』 1923. 3. 7. 「대전군의 농부대회」

13) 『동아일보』 1923. 3. 13. 「가수원농부대회위원」

14) 『동아일보』 1923. 3. 23. 「대성황의 소작강연」

책에 대하여 협의하고 서상일, 이윤희 외 다수내빈의 축사가 有한 후」¹⁵⁾ 등이 그것이다.

이윤희는 「디주가 조건 업시 언제든지 소작인을 해제치 못할 일」¹⁶⁾에서 볼 수 있듯, 지주가 마음대로 소작인을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소작권이동방정책에 힘쓴 당시 농부대회의 집행위원으로 당선된다거나, 선언서 낭독, 강연을 하는 것 등으로 농민운동에 앞장섰던 것으로 보인다.¹⁷⁾

그런데 흑도회가 1921년 11월, 흑우회가 1923년 2월, 흑로회가 1923년 1월 서울에서 결성되는데, 흑우회 기관지 후토이센진(『太い鮮人』) 제2호에 「이강하, 이윤희 등은 대전에서 농부대회 등을 열며 상당히 열성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고, 당시 농부대회에 연사로 등장하는 서상일¹⁸⁾이 흑도회 멤버인 것으로 보아 이 당시 펼친 농민운동이 아나키즘 단체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일본에서의 활동

일본에서의 활동을, 다시 1920년대 아나키즘 단체를 중심으로 한 활동과 30년대 민족계 아나키즘노동단체를 중심으로 한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920년대 아나키즘 단체를 중심으로 한 활동

1921년 11월 흑도회¹⁹⁾가 설립되고, 이 흑도회가 1922년 10월 박열 일파에 속한 아나계와 김약수 일파의 공산주의계로 분화되어 박열, 김중환, 이윤희는 흑우회를, 김약수, 김종범, 송봉우, 변희용, 김장현, 이여성 등 60여명은 북성회²⁰⁾를 조직했다. 이와 관련하여 『고등경찰 관계연표』(1923.1.15)에 「내지(内地) 유학생 김약수, 김종범, 송태우, 이여성 등은 1921년 11월 동경에서 흑도회를 조직했지만 박열, 김중환, 이윤희 등의 아나계와 의견 충돌하여 공산주의의 본회²¹⁾를 조직」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박열, 장찬수 일파가 1922년 10월 경 흑도회 해산 후 풍뢰회(風雷會)를 새로이 조직하고 흑도회의 기관지 『흑도』를 후토이센진(『太い鮮人』)으로 바꾸어 발행, 얼마 지나지 않아 풍뢰회를 흑우회로 개칭한다. 그리고 1923년 3월부터 『太い鮮人』을 현사회(『現社會』)로 제호

15) 『동아일보』 1923. 4. 6. 「대전소작정기총회」

16) 『동아일보』 1923.3. 7. 「대전군의 농부대회」

17) 이외에도 『동아일보』 1923. 3. 15.에 이윤희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18) 『동아일보』 1923.3.23.에 「동경 민중운동 잡지 편집인」으로 소개되고 있다.

19) 흑도회 멤버에, 박열, 정태신, 김약수, 정태성, 서상일, 원종린, 조봉암, 황석우 등이 간사를 맡았고, 그 외 각종 자료를 살펴보면 신영우, 박흥곤, 손봉원, 황석우, 이용기, 이명건 등과 이윤희, 하세명, 김정근, 김형운, 이흥근 등이 있다(김명섭, 『재일 한인 아나키즘운동 연구』, 단국대박사학위논문, 2001, 58~59쪽).

20) 김인덕, 『식민지시대 재일조선인운동 연구』, 국학자료원, 1996, 53~55쪽.

21) 북성회를 말함.



를 바꿔 발간하는데, 제3호에 「본사동인 이윤희, 이필현, 金子ふみ(원문대로), 박열」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윤희가 카네코후미코(金子文子) 등과 동인으로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23년 1월 박열이 니가타현(新潟縣)²²⁾ 사건을 보고하고 폭탄을 유입할 목적으로 서울을 방문했을 때 김중환, 이강하 등과 만나 아나키즘 단체결성에 관해 논의한 후 흑로회를 결성하는데 이윤희도 같이 참여했다.²³⁾

1926년 흑우회가 흑색전선연맹으로 조직이 개편되고, 1927년에는 흑풍회로 명칭이 개칭된다. 이 흑풍회가 친일파와 공산주의 세력에 보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원심창, 한하연, 이윤희²⁴⁾ 등에 의해 반공산주의 노선을 분명히 하여 1928년 1월 흑우연맹으로 재편된다. 김명섭은 『재일 한인아나키즘운동 연구』에서 「흑우연맹의 주요회원은 흑우회-흑풍회 등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이었다. 즉 원심창·정태성·장상중·이윤희 등은 박열의 유지를 받아 반일 행동에 직접 나섰던 인물들이다. 이와 함께 눈에 띄는 점은, 새로 입회한 회원들이 대개 상해회나 공산주의자들과 심한 충돌을 겪은 바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듯, 이 흑우연맹이 반일·반공적 조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경보국보안과 「각종사회운동단체현세표」(1928.8)에 오사카 무정부주의 단체인 조선인신진회와 흑색선인사의 주요인물에 이윤희가 올라있다.

이로 볼 때 이윤희는 흑도회부터 흑우연맹에 이르기까지 각 아나키즘 단체를 통해 주도적으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2) 1930년대 아나키즘 단체와 노동조직을 중심으로 한 활동

1930년대 들어 이윤희는 조선동흥노동동맹과 조선자유노동자조합 등 민족계 아나키즘노동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는 1926년 이후 아나키즘단체가 노동운동에 힘쓰게 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도쿄 흑우회에 참여했던 이윤희는 교화운동사와 흑색조선인사²⁵⁾를 조직, 회원으로 각 20여명이 있었으며, 1930년 해체한 후 아나키스트청년연맹에 참가하는데, 아나키스트청년연맹은 일본 농촌청년사의 1931년 8월 자주분산·자주연합이념에 따라 해체했다. 그 후 그는 농촌청년사의 기관지 『大阪 黒旗』의 발행에 참가했고²⁶⁾, 1932년 7월 시바우라(芝浦)노동자자

22) 1922년 여름 니가타현(新潟縣) 나가즈가와(中津川)에서 발생한 조선인노동자학살사건.

23) 『현사회』제3호에, 「흑로회, 아나키스트, 김중환, 이윤희, 이강하, 신창기 군 등에 의해 1월 상순 경성에서 흑로회가 조직되었다. 사무소 조선 경성부 수창동 104」라고 나와 있다.

24) 이외에 김형운, 송영운, 홍성환, 이동순, 김금순, 이시우 부인, 최낙중, 정태성, 홍형의, 박기홍, 김건, 최중현 등이 있다(무정부주의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아나키즘운동사』, 국학자료원, 278쪽).

25) 『特高月報』(1931. 1)에 「재류조선인주요단체」의 무정부주의계 오사카의 교화운동사, 흑색조선인사의 중심인물로 이윤희가 나온다.

유연합 조직, 10월 흑색전선사 기관지 배포망을 찾다가 검거되었다.

그리고 1933년 3월 침체된 조선자유노동자조합을 재건하기 위해 임시대회를 주창하고 문화부 간부로 선출되기도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特高月報』(1933.3)로 알 수 있다.

재경 아나계 조선자유노동자조합은 주의의 선전이 뜻대로 되지 않아 會勢가 침체 상태에 있는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그 타개책으로 부심하던 중, 3월 15일 **李 네스토르**, 즉 **이윤희**의 주창으로 사무소에 임시대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조직변경을 결정하고 그 확립을 기하여 금후 퇴세 만화에 노력하기로 하다

(一) 지구섹션 A. 후카가와(深川)방면 B. 오오테마치(大手町)방면 C. 우마야바시(廢橋)방면

(二) 각 부문

(1) 회계부 부원 : 이규옥, 마중대, 고만식, 김동민

(2) 쟁의부 부원 : 박동식, 이종식, 안홍옥, 문성훈, 오유영

(3) 선전부 부원 : 선병희, 오진산, 이종문, 최상빈, 정갑진, 손병휘, 이철용, 김창규

(4) 문화부 부원 : 이윤희, 오성문, 大西正司(内地人)

(5) 정보부 부원 : 이용길

그리고 4월에는 『도쿄에서 개최한 전국자련 제3회 대회에서 조선동흥노동동맹, 조선자유노동자조합, 흑우연맹 등 소속 조선인 30여명이 참가했는데, 그 중 이윤희가 서기에 임명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그 외 참가 조선인은 개회에 앞서 약간의 대회기금을 내어 위원에게 제출했다』²⁷⁾는 것으로 보아 전국자유연합 제3회 대회에서 서기로 선출되기도 하는 등, 조선자유노동자조합에서 간부로 활동하며 조직의 확립 및 반일투쟁²⁸⁾을 전개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자유노동자조합에서는 1934년 3월 이후 조합간부 이윤희의 주창 하에 침체된 무정부주의운동의 타개책으로 조직의 확립을 꾀하고, 또 같은 해 3월 조합원 오규호와 상애회 회원 김봉수 사이의 개인적 투쟁을 양 단체의 항쟁으로 발전시켜, 이들을 습격하려고 일본도 등 흥기를 준비하고 있던 사례도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제14회 메이데이 시행에 맞추어 재경 아나계 조선인 각 단체가 일본인 각 단체와 제휴하여 4월 5일 도쿄 간다(神田) 마츠모토정(松本亭)에서 개최한 준비협의회

26) 김명섭, 「1930년대 재일 한인 아나기즘 운동의 제양상」 『한국근현대사연구』 여름호 제17집, 2001, 108쪽.

27) 박경식 편,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제2권, 三一書房, 785~786쪽.

28) 坪江仙二, 『개정증보 조선민족독립운동비사』, 巖南堂書店, 1959, 288쪽.



에 오우영, 이윤희, 양일동, 최학주 등 대표자를 출석시켰는데, 해당 메이데이가 좌우 양파로 분열되기에 이르자 당일은 좌익파의 메이데이에 참가하여, 투쟁목표를 파쇼반대, 제국주의 전쟁반대, 실업반대라는 소위 3반대투쟁에 집결하여 꽤 과감한 투쟁을 전개²⁹⁾ 했다는 내용으로 봤을 때 그는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운동에 앞장섰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고순흠³⁰⁾이 『신진회를 중심으로 한 반민족단체 소탕』에서 상애회 및 조선인협회 소탕과 자아성, 민성보(民聲報), 조선민보 등 각종 운동을 같이하던 인물로 이윤희를 들고 있다.³¹⁾

또한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³²⁾의 『재경 아나게 조선인단체의 통일운동』에 오우영, 이윤희 등이 자유노동자협의회를 결성하고자 하나 반대의견에 의해 운동이 좌절된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경 조선자유노동자조합간부 오우영(吳宇泳), 이윤희(李允熙) 등은 本年 6월 재경 아나게 조선인 각 단체의 통일을 꾀하고 그 명칭을 『자유노동자협의회』로 하기로 정하고, 관계단체에 교섭을 개시하자 조선동흥노동동맹 시바부(芝部) 및 극동노동조합은 즉시 이에 찬동하고, 더욱 조선동흥노동동맹 본부에 대해 교섭하자 간부 민흥규, 최학주 등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결국 이 운동은 도중에 좌절되고 자연 소멸하게 되었다.

또한 이윤희는 이런 직접 행동뿐만 아니라, 1931년 9월 아나키즘 문예사상지 흑색전선에 이 네스토르(李ネストル)라는 이름으로 소설을 발표하였고, 1932년 1월 『흑색전선』 제2호에 『소비에트·러시아의 苦役所』—李 네스토르 역……李는 오사카, 아나키스트 청년연맹에 있던 에스페란티스트³³⁾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그리고 1932년 9월 농촌청년사의 발전적 해산 때 성명문의 초고기안³⁴⁾, 1933년 8월 『민중

29) 박경식 편, 「메이데이투쟁상황」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 제2권,三一書房, 786쪽.

30) 제주출신 고순흠은 조선일보 고베(神戸)지국장을 지내면서 조선여공보호회를 조직하고 제주 출신 여공의 권익옹호에 노력했으며, 사카이 조선자유노동자연맹, 오사카 자유노동자연맹을 조직했다. 조선인신진회 조직에 관계하고 조선인협회에 대항했으며, 자아성민보사, 조선민중사 등 언론사에도 투신했다. (정혜경, 『일제하 재일한국인 민족운동의 연구—大阪지방을 중심으로—』, 1998,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70쪽)

31) 김찬흠, 「애국지사 죽암 고순흠의 생애(VII)」, 『교육제주 63』, 1988, 305쪽. 그 외에 최선명, 김돌파, 손무, 김병훈, 고민우 등을 들고 있다.

32) 박경식 편,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 제2권,三一書房, 785쪽.

33) 『농촌청년사사건·자료집 I』, 흑색전선사, 1991, 125쪽.

34) 『자유연합신문』 제 74호, (1932. 10. 10)

「청산하여 재출발 - 농촌청년사 태도 성명을 발표하다」에, 우리들의 운동을 왜곡하고 독선 주의 입장에서 배척되고 있던 농촌청년사(기관지 『농촌청년』)는 요번 오노 초고로(小野長五郎), 이 네스토르 군 등에 의해 재출발하여 과거의 오류를 인정하고 태도를 정한 성명서를 냈다.

의 중』이라는 팜플렛 작성 배포³⁵⁾ 등의 활동사항으로 볼 때, 『현사회』의 동인으로 활동한 것을 비롯하여 소설, 에스페란토 번역 등 다양한 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유연합신문』³⁶⁾에 「관서의 동지 속속 검거되다」라는 제목으로, 이윤희 및 신철이 전단지 배포로 인해 검거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1932년 『사회운동의 상황』4에 「자유연합 신문 호외 발행에 관한 협의 중」의 중李 네스토르, 즉 이윤희(李允熙)³⁷⁾ 등 5명이 검거된다는 기록, 『特高月報』(1932.10)에 「경시청에서 이윤조(李允照)³⁸⁾를 검거 취조한 결과」아나계 흑색 전선사의 기관지 배포망이 판명되다」는 등의 검거기록과 경본경고비 제11562호(1932.10.24) 「선인한신무정부주의단체(鮮人阪神無政府主義團體)」의 동방노동자연맹에 손무(孫無), 최선명(崔善明)과 함께 이 네스토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로 볼 때 1930년대에도 활발하게 활동했음을 알 수 있고, 이윤희가 참가한 주요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표 1>에 정리해 두었다.

<표 1> 이윤희의 주요활동 단체

단 체	결성시기	주 요 인 물	비 고
흑 도 회	1921	박 열, 정태신, 김약수, 정태성, 서상일, 조봉암, 원종린, 이윤희	기관지 『黑濤』 1922.10 해체 이후 풍뢰회 결성
흑 우 회	1923	박 열, 김중환, 장상중, 원심창, 이필현, 육홍균, 정태성, 서상일, 이윤희	기관지 『太鮮人』 『黑友』 『自由社會』 『現社會』 흑우연맹(1928.1)으로 재편
흑 로 회	1923	박 열, 김중환, 이강하, 신기창, 이윤희	

35)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3』 443쪽에 1933년 재동경 무정부주의계통 조선인 이윤희가 「8월 16일자 「민중의 중」 제하의 인쇄물을 작성, 배포」했다는 기록이 있다.

36) 『자유연합신문』 제52호, (1930.10.10)

“을 가을 고베(神戸) 앞 바다 일대에서 행해진 관함식(觀艦式)을 위해 지배자 계급과 그 앞잡이들은 혈안이 되어 광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탄압은 우리의 진영을 습격하여 동지들이 연이어 유치장에 붙잡혀 들어갔다. 지난 7일 오오쿠시 코(大串孝)군은 후지이데라(藤井寺)구장에서, 11일 우에노 카즈미(上野克巳)군 외 1명(아마 黑澤의 아마구치 야스지(山口安二)군이라 여겨진다)이 아나키스트청년연맹 사무소에서, 같은 날 아마오카 키이치로(山岡喜一郎)군은 토미다 하야시(富田林)의 자택에서, 12일에는 아마다 고로(山田五郎)군이 마찬가지로 연맹사무소에서, 이 네스토르, 신철(新鐵) 양 군(兩君)은 코사카(小坂)에 있는 신철 군의 집에서 전단지를 뿌린 것 때문에 붙잡혀 있는 것 같다.”(후략)

37) 「李允熙」는 李允熙의 오기.

38) 「李允照」는 李允熙의 오기.



단 체	결성시기	주 요 인 물	비 고
오사카조선무산자사회연맹 사카이조선자유노동자연맹	1924 1925	최선명, 김태엽, 손 무, 고민우, 이윤희	
전국노동조합자유연합회	1926		기관지 『自由聯合』 전국노동조합자유연합회 3회 대회 (1932)에서 서기로 선출
조 선 자 유 노 동 자 조 합	1927	장상중, 오우영, 한하연, 이윤희	임시총회(1933.3)에서 문화부간부 로 선출
흑 우 연 맹	1928	원심창, 한하연, 오치섭, 홍성환, 정태성, 이윤희	기관지 『互助運動』
조 선 인 신 진 회	1926	고순흠, 최선명, 이윤희	경보국보안과 「각종사회운동단체 현세표」(1928.8)에 조선인신진회, 흑색선인사의 주요인물
조선동흥노동동맹시배(芝)부	1929	이 네스토르	
교화운동사, 흑색조선인사	1931		『特高月報』(1931.1) 오사카의 교 화운동사, 흑색조선인사의 중심인 물
동 방 노 동 자 연 맹		손무, 최선명, 이 네스토르	경본경고비 (1932.10)

3. 이윤희의 활동 의의

오장환은 『한국아나키즘운동사 연구』에서 「아나키즘에 대한 번역으로 무정부주의(無政府主義)란 단어를 한자문화권에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지만 무정부주의란 단어가 아나키즘의 진정한 목표인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이상사회를 추구하는 긍정적 측면보다 정부를 없애자는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번역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³⁹⁾고 지적하듯, 일제시대 아나키즘을 무정부주의로 인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본 보고서에서도 아나키즘, 아나키스트로 통일했다.

39) 오장환, 『한국아나키즘운동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8, 10쪽.

또한 아나키즘 연구자인 강남대 김명섭 교수가 주장하듯, 일제시대 아나키즘운동은 반일, 반권력 투쟁으로 시작되어 1920년대와 30년대 노동운동, 일제말기 비밀결사에 이르기까지 항일운동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23년 박열이 조직한 비합법 비밀결사 직접행동 단체인 불령사(不逞社)의 투쟁으로 시작된 아나키스트들의 운동은, 예를 들어 흑도회의 니가타현(新潟縣)사건에 대한 조사단 파견과 항의투쟁, 흑우회의 사회운동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과격사회운동취체법안에 대한 반대시위 등으로 볼 수 있듯 직접 반일행동에 나섰다⁴⁰⁾

또한 반 상해회 투쟁과 1926년 후반부터 나타나는 노동운동으로의 진출, 1940년대 비밀결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직접행동을 통한 항일운동을 전개했으며, 이런 아나키스트들의 활동은 재일조선인운동, 민족운동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윤희의 경우, 재일 한인 최초의 사상단체인 흑도회를 비롯 1933년 조선자유노동자조합이나 1934년 조선일반노동자조합에 이르기까지 그의 활동 자체가 아나키즘 운동의 과정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그동안 자료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업적을 평가받지 못한 이윤희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해 진실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I. 결론

각 논문이나 자료에 등장하는 이윤희가 몇 년생인지 어디 출생인지 명확하지 않았으나, 신청인의 증언을 토대로 출신학교인 진잠소학교 졸업생명부를 통해 1902년 4월 20일생이며 대덕군 기성면 가수원리 출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국내와 일본에서 같이 활동하던 이강하와 소학교 동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윤희의 활동을 국내와 일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국내에서는 1922년 말과 1923년 초에 걸쳐 대전 및 고향인 대덕군 가수원리를 중심으로 농민운동을 전개했는데, 이 때 소학교 동기인 이강하와 함께 활동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활동을, 1920년대 아나키즘 단체를 중심으로 한 것과 30년대 아나키즘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21년 흑도회, 1923년 흑우회, 1928년 흑우연맹, 1928년 오사카에서 조선인신진회, 흑색선인사와 같은 각 아나키즘 단체를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활동했으며, 흑우회 기관지인 『현사회』의 동인으로도 활동했다.

40) 불령사의 황태자 및 고관대작 암살계획(1923년 10월)이나, 1924년 1월 김지섭의 二重橋폭탄사건 등이 있다.



1930년대 들어서 1932년 시바우라(芝浦)노동자자유연합조직, 1932년 전국노동조합자유연합회에서 서기로 선출, 1933년 조선자유노동자조합 임시총회에서 문화부 간부로 선출된다. 또, 『자유연합신문』제52호(1930.10.10) 및 『特高月報』(1932.10), 『사회운동상황』4에 검거 기록이 있는 등, 1930년대에도 주도적으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고, 그에 관해서는 『근대일본사회운동사인물대사전』4에 비교적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일제시대 아나키즘 운동은 반일 직접행동, 반상애회(친일단체)투쟁, 1920년 후반부터 두드러지는 노동운동, 1940년대 비밀결사에 이르기까지 항일운동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윤희의 경우, 재일 한인 최초의 사상단체인 흑도회를 비롯하여 1933년 조선자유노동자조합이나 1934년 조선일반노동자조합에 이르기까지 그의 활동 자체가 아나키즘 운동 과정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그동안 자료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업적을 평가받지 못한(보훈처 1995 미포상) 이윤희의 항일독립운동은 진실규명으로 판단된다.